

손 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풍경과 선율

지맵, 여름특별기획전 'Good Day, Good night'

발달장애인 작가 4명 작품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재탄생

오는 9월18일까지 4전시실

관람객이 벽면에 투사되어있는 꽃들과 동물을 터치하는 순간 숨겨진 사운드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 여름 특별기획 'Good Day, Good night' 전이다.

'Good Day, Good Night'은 G.MAP의 개관전 디지털 공명 섹션 중 실험형 공간에서 선보인 작품 중 하나다. 전 연령대의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몰입형 실감 콘텐츠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발달장애인 박혜신·권한솔·이다래·양시영 작가의 회화 작품을 기반으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제작그룹인 이지위드의 뉴미디어 기술지원팀과 작곡가이자 가수인 하림의 사운드를 통해 완성된 몰입형 사운드 아트 작품이다.

두 개의 다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 작품은 박혜신·권한솔의 작품 속 꽃과 자연풍경 고양이 등이 담긴 작품을 콜라주해 낮 풍경을 구성한다.

동양화의 매체를 활용하며, 개성 있는 필력으로 일상의 모습을 재해석한 양시영 작품과 강렬한 색채, 동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이다래 작품은 밤의 풍경을 완성했다.

관람객은 사면에 투사되는 18대의 프로젝션을 통해 다양한 풍경과 마주하게 되는데, 벽면에 투사되어있는 온갖 꽃들과 동물들을 선택해서 터치하는 순간 숨겨진 사운드와 풍경이 펼쳐진다.

관람객의 움직임과 터치에 의해 생성되는 다채로운 배경과 화음은 관람객의 참여로 새로운 화면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공간각적인 체험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전승보 관장은 "그림과 음악은 서로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장 근원적인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맑고 투명한 동화와 같은 그림들과 선율을 배경으로 작품과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G.MAP의



박혜신·권한솔·이다래·양시영 작가의 회화 작품을 재구성한 미디어아트 'Good Day, Good Night' 전이 오는 9월18일까지 열린다. 사진은 지난 3월 지맵 개관전 디지털공명 전시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제 4 전시실은 기술과 예술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와 공연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서 미디어아티스트는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미터 정방형 바닥을 포함하는 사면의 대형 프로젝션 월은 예술가의 상상력과 기술팀의 융합을 통해 제작되는 다양한 창작작 작품을 구현

할 수 있으며, 첨단 인터랙티브 시스템이 입체적이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시공간에서는 앞으로도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이머시브 및 인터랙티브 프로젝트 등이 주로 소개될 예정이다. 오는 9월 18일까지 지맵 제 4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나라 기자

ACC재단 세 번째 오픈특강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중식당 역사·화인의 역할 강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우리 안의 화인 음식이야기' 세 번째 오픈특강이 27일 오후 3시 ACC 라이브러리파크 북라운지에서 열린다.

'우리 안의 화인 음식이야기' 강사는 이정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다.

이 교수는 '한국 중국집의 역사와 화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로 이주한 후 생업을 위해 중국집을 경영한 화교들의 삶을 소개한다. 이 교수는 근대 시기 중국집 대부분이 화교들에 의해 경영됐고, 규모가 큰 요리점부터 호떡집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인 중국집의 역사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 중국 요리집이 어떻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가장 대중적인 외식공간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번 오픈특강 참가비는 무료이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 교육 참여기관 모집...선착순 마감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22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하반기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은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일상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교육 과정이다. 지난 2021년에는 총 75회를 운영하고 3,890명이 교육 수료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성차별적 제도와 개선방향 제시 및 성 평등 정책의 중요성 ▲여성혐오, 성차별, 디지털 성범죄, 백래시 등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젠더 폭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신청은 초·중·고·대학생, 교원, 기관,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민간기업, 기타 성인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1회당 10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문의는 062-670-0532로 하면 된다.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성평등 광주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황연 '치유'

즐거웠던 사적공간 마루로 초대합니다

황연 작가 개인전 '놀이마루' 전
9월8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공모전 '여신 나르샤' 당선자 황연 작가 개인전이 오는 9월 8일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열린다.

황연 작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우울감과 공허감을 마주했다.

작가는 마주한 우울감을 어릴 적 사랑했던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했고 수채화 교실에서 시작한 예술활동은 늦은 나이 미술학과 편입이라는 용기를 갖게 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즐겁게 그림을 그리며 최고로 즐거웠던 사적인 공간이자 이제는 꿈을

이루는 작업실이 된 마루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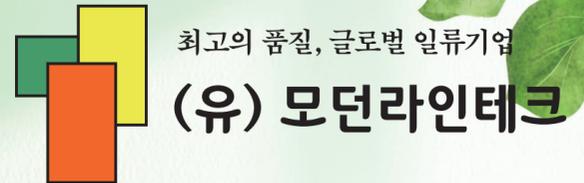
황연 작가는 "나의 즐거운 마루, 작업실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고 있다. 나의 작업을 통해 꿈을 잃어버린 상실감이나 바쁜 일상이 따뜻한 공간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놀이마루를 관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존이 준비됐으며 전시 및 체험 후기 인스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식 유튜브, 블로그 채널에서도 온라인전시중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은 "이번 전시는 누군가의 아내 혹은 엄마가 아닌 '예술가 황연'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교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며 그 공간을 즐겁고 유익하게 채운 작가의 마루에서 도민 여러분만의 공간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테크

조달청등록업체

01
화장실
칸막이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03
벽천장용
흡음재

TEI.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